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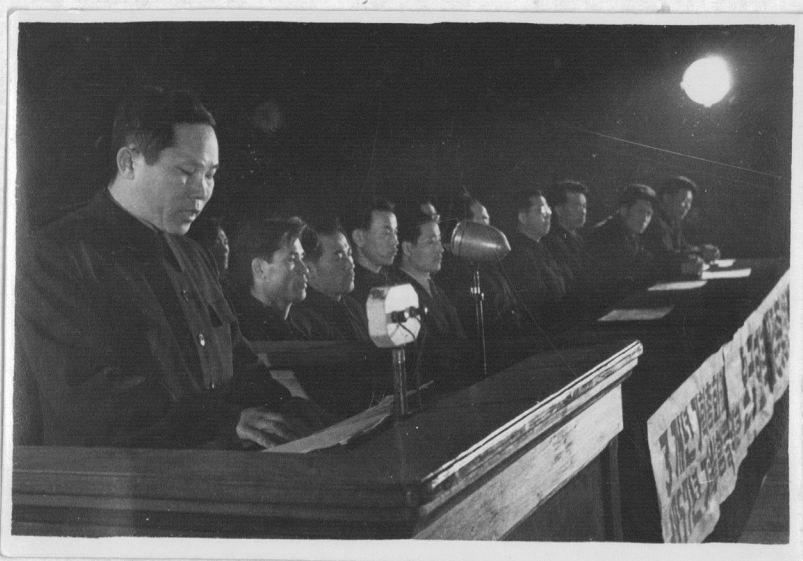


조선인민군 대장 장철 선생님.

장철선생은 1914년 9월 20일에 원풍(원강) 연해주 안포시예촌 구역 노포기업소크 시에서 빈농의 가정에서 태어나셨다. 태어나신 도시에서 소학교와 초중을 마갑하시고 다음사범전문학교까지 마갑하시었다. 1932년에 사권을 마갑하신 장철선생은 처음 2년간 초중학교

교원 겸 노년단 지도원으로 일하시던 1933년부
 터 1937년까지는 큰공청단체 지도원을 겸하여
 공청회 책임서기로 1937년, 즉 강제어쿠당시까
 지 일하시었다. 강제 어쿠에 의하여 우즈베크 공화
 국에 도착한 강선행은 1938 부터 1940년까지
 하뉴젠즈크 화철취구역에서, 다음 1941년부터
 1943년까지 화철취구역 당지르원으로 일하시
 었으며, 1943년부터 1945년까지 화철취
 구역 국영농장 당조직원으로 일하시다가 1946년초
 에 중국사무원부의 명령에 의하여 북한에 도착하
 시어 북한에 주둔한 노년단체 25군단 민권사령부
 산업부 계통에서 총역원으로 일하시었다. 1946년
 말에 주릉되어 북한 정부 계통 평의안전부 부책임자
 로 1947년까지 일하시었다. 1948년부터 1950년
 동쪽 삼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평북 모노사이느
 유관 광석 취광에서 당중앙 대표자로 일하시다가
 1950년 8월 25일에 전쟁이 개시되자 전선후방
 부사령관으로 임명 되어 전쟁 3년간 일하시었다.
 전쟁이 끝 끝나자 강선행은 하나 흥남비료공장
 지배인으로 임명 되어 비료 공장을 복구하고 그를
 다시 돌게 하였다. 1955년에 비료공장이 완전히

복구되어 비록나 생산되기 시작하자 장선생은
 또 다시 동원되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후방
 부사령관직에 임명되어 1959년 북원에 귀환
 할 당시까지 일하시었다 당시 군사청장은 중
 장이었다 1959년 말에 북원에 귀환한 장선생은 북원
 공장장의 직전에 의하여 하유켄트에 도착하여 고령당
 학교에서 공부하시어 그를 졸업하신 다음 1963년에 공화
 국 건설성 당조직원으로 1963년부터 1968년까지 일하시어
 1968년부터 1974년까지는 한인들이 몰여서 경영
 하는 있던 비리모범 국영농장 당조직자로 일하시어
 1974년에 권금생활에 들어가 복원 김혜옥, 아들 장
 와실기, 학교에서 공부하는 두 손녀를 데리고 하유켄트
 시에서 아주 행복하게 지내시다가 1995년 4월28일
 에 서거하시었다. 장선생은 국가훈장들을 수여받았다.



사진은 장선생이 홍나비로공장 지배인으로
 개설시 당일성자 회의에서 보고하는 장면.

Qayerdan

Par avion

Otkuda

Ўзбекистон
г. Ташкент 700115.
Телангар 1-29-34.
М.Ш. 7.



Qayerga

Kuda

Севр. Юнској Корен.

서울 대한민국, 리먼길 전

Recomm

R | Tashkent 145
No 185

185

중구, 칠곡로 5가, 20-5 상이빌딩
12층 20
4층

4